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속 의사 백강혁은 없었다

광주 교통사고로 다친 30대 숨져 뇌출혈 불구하고 비응급 환자로 분류 대학병원까지 3시간 소요돼 악화 “영망진창 시스템 골든타임 놓쳐”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작품 내 중증외상센터를 이끌어 가는 의사 ‘백강혁’은 외상 환자를 위해 병원이 아닌 현장으로 뛰쳐 나가 환자를 진단하고 분류하지만, 광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환자는 뇌를 다쳤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의료대란이 만든 2025년 대한민국의 실제 풍경이다.

13일 광주소방본부와 광주 광산경찰

환자명	Alert	눈뜨기: Spontaneous(4)	응급번호: 0119
성명	남성	나이: 30	신장: 170
중상	C00286A1	Headache H-Headache	
진단	C02430A0	Painful rt shoulder Rt-shoulder pain	
내원유래	신고시각 새벽 05:50 car to car TA 운전차 사고 후 차 밖으로 내리 > 좌측 고관절통증, 우두부 수상, 좌측 이마 수상, 허리통증 있어		
과거력	무		
진상일시	2025.01.06	08:58	진상장소: 광산외과
진상장소	유급실당 전문의 진료만 있음		
진상원인	전통 유급실료를 요인으로 전행		
진상경과	중환자실로 이송		
진상결과	전남대학교병원		
진상처분	1차 유급구제1, 2차 유급구제1, 최종구제, 유급한자 진료		
진상시간	진상장소		
진상처분	진상처분		

지난 1월6일 오전 5시50분께 광산구 하남진곡산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친 A(38)씨의 간호 일지에 ‘응급실 담당 전문의만 있는 가운데 전문 응급의료를 요해 전원초치 된다’고 적혀 있다.

독자제공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5시50분께 광산구 하남진곡산단 고속도로에서 A(38)씨가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전 도로 위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은 살얼음인 이른바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시내버스도 미끄러지면서 A씨의 탑차를 추돌한 충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오전 6시21분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이송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공 반응과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에 의한 경막하출혈(뇌출혈/두부수상)의 LEVEL 2가 아닌 비응급인 LEVEL 5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뇌수술 전문의가 없는 광산구 소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진행했으나 발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약 1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30분이 되어서야 광주 지역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간 압박이 시작된 상황이었다. 교통사고 당시 뇌출혈이었지만 조기 대처를 못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 것이다. 결국 A씨는 1주일일 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영망진창인 응급시스템 체계로 인해 남편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교통사고 후 늦은 전원 조치로 남편을 보내야 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환자 상태 등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중증도 LEVEL 3로 판단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으나 구조일지에 LEVEL 5로 잘못 작성됐다”면서 “구급대원들은 현장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를 분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나 CT 촬영 등 기계를 이용해 정밀 검사로 환자

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진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구급현장 활동의 한계는 있지만 이송하는 모든 환자를 다 살리고 싶고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특정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주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드라마처럼 구조·구급 과정에서 중증 여부가 몇 단계인지 의사들이 현장에서 함께 판단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일반진료를 하지 않고 의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진료를 할 수 있으나 열악한 처우 속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의사 수가 적은 상황이다”며 “그렇다면 구조·구급을 하는 대원들도 능력을 키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의료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기·정상아 기자

엇갈린 ‘희비’...함평군수 무죄, 담양군수 ‘당선무효’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이병노 담양군수 대법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2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엇갈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씩 총 1700여만 원을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추천했을 뿐 대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한 것으로 봤을 때 이 군수의 대납사실이 인정되며 법률 서

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 운동과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 재판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항소가 없거나 기각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형복 구입비를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말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는 1년간 혐의를 재판에서 다투었다. 앞서 검사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당시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고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원기 기자



13일 오후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10명의 유해에 대한 화장이 진행됐다. 관이 화장장 내부로 운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제주항공 희생자 남은 유해 모아 뒤늦게 화장

현장 추가 수색과정 발견 110명 애달픈 작별인사 끝없이 이어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47일째. 사고 현장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에 대한 합동 장례가 거행되며, 희생자 모두가 영면에 들었다. 유가족들은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13일 오후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10명의 유해에 대한 화장이 진행됐다. 무안국제공항을 출발한 희생자들의 유해가 3대의 운구차에 실려 영락공원 화장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유가족들은 가슴 속에서 치솟는 슬픔

을 억누르며 눈물을 참아내는 모습이였다.

각 운구차의 문이 열리고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애타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가족들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오열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끝내 주저앉았다. 한 중년 여성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며 한참 동안 울부짖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서로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등을 매만지며 고통을 견뎌내려 애썼다.

상여꾼으로 나선 유가족들의 얼굴에도 비통함이 가득했다. 관을 화장장 안으로

운구할 때까지 눈물을 참던 이들은 결국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돼 돌아 나왔다.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원 불일님의 추모 염불과 ‘아리랑’ 구절은 더욱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유해가 화장되는 50여분 동안 화장장 내 대기실 곳곳에서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고인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전광판에는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사랑하는 내 남편, 당신의 빈 자리가 너무 크고 아프다’, ‘사랑하는 딸,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빌게’ 등 애달픈 작별 인사가 끝없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화장이 끝난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담양 대덕면의 한 봉안당에 안치됐다. 유가족들은 먼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흐르는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광주·전남 생계형 절도범죄 빈번 ‘주의’

광주 서부경찰 전선 절취 40대 조사 전남선 빈집털이·절도행각도 전문가 “사회복지적인 접근 필요”

광주·전남 지역에서 빈집털이, 전선 절취 등의 생계형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구역에서 1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광천동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빈집이 많은 점을 떠올리고는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허술한 점 등을 노려 오전 시간에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사용해 전선을 절취했다. 그러나 순찰하고 있

던 현장 관리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행위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마친 후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에서도 생계형 절도 사건이 잇따랐다.

담양경찰은 지난 12일 상습 절도를 이어오던 50대 빈집털이범 B씨를 구속했

다. B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과 나주, 화순 등 전남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60대가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14분께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C씨가 7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타지에서 선원으로 홀로 일하던 C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

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20여년간 친분을 유지하던 D씨의 집에 몰래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잠에서 깬 D씨에게 범행 사실을 듣기자 흥기를 휘둘렀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침입절도범죄 건수가 빈번하게 증가하는 추세다”며 “여러 방식들을 도입해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준 수습기자